

## News

## '소상공인전문은행' 정부 주도로 설립된다

뉴스1

<https://vo.la/LElOPnj>

그동안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나 소상공인 협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'소상공인전문은행'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방안이 검토

'빚 탕감' 등 채무 조정에 초점을 둔 배드뱅크 설립과는 별개로, 소상공인 특화 평가 체계를 마련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 대상 신규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

## 중소 대출 많이 해줬나...은행마다 점수 매긴다

한국경제

<https://vo.la/JeXBJwz>

국정기획위원회는 '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'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

여신 확대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이나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적인 '줄 세우기'가 될 수 있다는 우려

## 건설·부동산 대출 '건전성' 관리 들어간 은행들... "대출 문턱 더 높인다"

뉴스웨이

<https://vo.la/FtpyVVY>

최근 시중은행의 건설업·부동산업 대출 증가세가 감소세...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구조조정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겹친 영향

이에 더해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위험가중자산(RWA)을 줄이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우량 담보 위주의 대출에 집중하는 모습

## “어르신들만 모실수 있다면”...4000조 넘게 보유한 고령층 눈독 들이는 4대 금융지주

매일경제

<https://vo.la/uyiLxxu>

금융지주사들이 삼성·LG전자·LG유플러스와 같은 기술기업은 물론 건설사 등과 함께 고령층 건강관리 기술 및 전용 공간 설계에도 나서는 모습

지나해 고령층 보유 자산이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금융지주별로 포트폴리오를 강화

## 케이뱅크 상장 주관사에 NH투자·삼성증권 선정

이데일리

<https://vo.la/zITJZvQ>

케이뱅크는 세번째 IPO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최종 선정

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, 삼성증권, 신한투자증권이 PT에 최종 참여했으나 가장 상장 전략 점수가 좋았던 두 곳을 선정했다는 평가

## NH투자증권, 美 에버코어와 IPO 업무 협약 체결

뉴시스

<https://vo.la/KwjFcSi>

NH투자증권은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(Evercore)와 기업공개(IPO) 업무 관련 전략적 제휴를 체결

이번 협약으로 NH투자증권과 에버코어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자문 서비스를 제공

## 보험사 K-ICS, 경과조치 적용 이후 8.7%p 하락...역대 최저치

비즈월드

<https://vo.la/tGglBUk>

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(K-ICS)은 197.9%로 전 분기말(206.7%) 대비 8.7%p 하락해 200%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

금융당국이 도입한 경과조치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하락과 부채 듀레이션 불균형이 겹치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

## 삼성화재, 암·뇌·심장질환 치료비 특약 '건보·간편보험' 확대

글로벌이코노믹

<https://vo.la/DemsQNN>

삼성화재는 암·뇌·심장질환 치료비 특약의 적용범위를 확대

이번 특약 확대는 지난 5월 출시된 건강보험 신상품 '보장어카운트'에서 처음 적용된 치료비 특약으로, 가입 고객 중 80% 이상이 선택해 좋은 호응을 얻은 데 따라 확대 적용

## 코인베이스, '토큰화 주식 거래' SEC 승인 요청

블록미디어

<https://vo.la/yqypEnE>

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정식 승인을 요청

코인베이스는 기존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

## 이창용 "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하지만 유의해야"

이데일리

<https://vo.la/PQSCJWQ>

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, 외환 관리와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 측면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

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꾸려지는 대로 각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

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